

호스피스 화이팅!

하 명 자 (안나)

(부산 메리놀 병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주 위 사람들은 말한다. “당신은 참 복이 많은 여자”라고, ... 그렇다! 생각만해도 가슴 저 밑바닥에서 부터 설레임이 이는 남편과 든든한 두 아들을 두고, 바다와 하늘이 보이는 넉넉한 거실에서 커피 한잔을 마시며 ‘아름답다’란 단어를 떠올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

혹시나 이 평화가 깨어질세라 마음줄이며(?) 사는 복 많은 여자이다. 그렇지만 나에게도 암담했었던 긴 고통의 시간들이 분명 있었다.

대학시절 암 선고를 받은 어머니의 투병 생활을 지켜보며, 아니 함께 하며 꿈 많고 평화롭기만 했던 생활은 산산히 부서지고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가며 병 간호에 지쳐있던 나 그 어떤 위로의 말도 우리의 불행한 현실을 새삼 비추어 주는 것 같아 주위의 따스한 방문조차 꺼려하고 불편해했다.

수술, 회복, 재발, 방사선 치료가 계속되면서, 단지 그 고통으로 부터 도망을치고 싶고, 지친 몸을 쉬고 싶어, 남편의 손짓에 쉽게 뛰어든 결혼생활 또한 환경차, 성격차, 생활고로 이어져 재롱떠는 자식을 눈 앞에 두고서도 죽음을 생각했던 우울증으로 발전했었다. 그때 허우적 거리는 내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우시고 변화시키고 치유시켜 새로이 태어나게 해 주셨던 그분! 한껏 매달라 있던 나에게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몸소 체험시켜 주시고 그렇게 싫어졌었던 남편을, 시어머니를 사랑하게 해 주신 그 분께 무언가로 보답 하고자 선택한 일이 바로 이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였다.

과거에 내가 경험 했었기에 더 조심스럽고 긴장 되었으나 당신께서 함께해 주시리라는 믿음이 힘이되어 5년이 지난 지금까지 큰 실수없이 지탱해 온 것 또한 감사드리지 않을수 없다. 그러나 아직 까지는 환자화영적 깊은 대화를 나누기 보다 씻어주고, 닦아주고, 맛사지해주면서 그들을 기쁘게해 주려는 초보적 단계를 못 벗어나고 있음을 고백한다.

때론 애써 다가가려 하지만 침묵으로 일관하며 거부하는 몸짓의 환자를 대하고 돌아올때면 온몸으로 봉사하고 온 것보다 더 피곤하고 무거운 발걸음이다. 그렇지만 긴 시간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아 고마워하는 눈빛으로 한치씩 자신을 열어 보이며 대화가 될 때 이 세상 무엇을 얻은들 이렇듯 행복하랴! 또한 사별가족 만남의 시간에 찾아와서 그때 환자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감동해서 스스로 천주교회를 찾아가 영세를 받았노라고 하시는 분들을 볼때면 '우리가 무엇이온데 이렇듯 사랑해 주십니까'란 기도와 함께 차라리 겸허해 지는 기분이었다.

그 뿐이라? 봉사하는 엄마의 모습을 지켜보며 탈선의 유혹을 뿌리쳤다면서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 보다는 뭔가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는 삶을 살겠다고 포부(?)를 밝히는 아들과, 병원에 봉사하러 오는 날은 아내위해 차를 내어주고 버스타고 출근하며 말없이 격려해주는 남편, 그리고 며느리가 봉사하는 요일을 절대 피해서 대소사 일을 맡기시는 시 어머니의 배려는 자칫 게을러 지고 싶고, 편하고 싶었던 마음을 다시 다잡아 주는 활력이 되었다. 이렇듯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삶의 진리를 터득하게 해 주는 호스피스역..... 만약 내가 이 세상의 긴 나들이 마치고 그분께 돌아갈 때면, 나와 인연 맺었던 많은 환자들이 환영 나와, 내 손을 붙잡고 그 분앞에 나아가 '씩 잘 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자신들을 위해 작은 노력을 기울였노라'고 변호해 주리라는 희망의 김치국부터 마시며, 오늘도 복잡한 출근길을 비집고 기도반 분심반으로 병원을 향한다.